

배포

2026. 05. 21.(목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부천중동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반달마을A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 체결

- 부천중동 반달마을A구역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위해 협약 체결
- 연내 구역지정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, 인허가, 초기사업비 등 적극 지원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20일 부천중동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반달마을A구역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 - ‘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’은 부천중동 1기신도시 등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(100만㎡ 이상) 등을 대상으로, 단일 단지별 정비가 아닌 인접 단지, 기반 시설을 포함한 ‘통합정비’를 시행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사업이다.
 - 부천중동 1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 총 18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있으며, 그중 은하마을, 반달마을A이 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.
- 이번 협약은 부천중동 반달마을A 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인 LH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, 안정적인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.
 - 협약을 통해 주민대표단은 사업 추진 관련 주민 의사결정과 동의서 확보 등을 수행하며,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지원, 초기사업비 투입 등 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한다.
- LH는 하반기 특별정비계획 지정제안서 사전자문 신청을 시작으로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.

- 현재 정비계획입안 예정(안)에 따르면 부천중동 반달마을A구역은 기존 3,570호에서 4,429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“반달마을A구역은 중동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중요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”이라며 “공공의 전문성과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이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신도시정비처	책임자	팀 장	이병관	(055-922-4501)
		담당자	차 장	노수정	(055-922-4513)
			과 장	박대용	(055-922-4511)